

'K팝스타' 시즌1 우승자...2년 공백 깨고 돌아온 박지민

“19금 뮤비... ‘소녀’ 지민, 여자가 됐어요”

벌써 스무 살 넘었다고 놀라는 사람도 내가 쓴 곡 번번이 퇴짜...치열히 싸워 타이틀곡 '에이프릴 폴스' JYP도 인정

뽀얀 젖살이 통통하게 오른 소녀는 이제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고집하며 “할말 다 하는” 자기주장 강한 20대 솔로 여가수의 열정만 남아있다. 2012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에서 자그마한 체구에 뿔어나오는 가창력으로 '리틀 아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지민(21)이 돌아왔다. 당시 열다섯 살 소녀의 옛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음악적으로도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2년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지민x제이미'(ji minxjamie)를 발표한 박지민은 “드디어 (앨범이) 나왔다”고 마냥 좋아했다. 이럴 땐 영락없는 귀여운 소녀 같다.

박지민이 이처럼 좋아하는 이유는 2년의 공백기 동안 음악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새 앨범은 네가 직접 작사와 작곡한 노래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박지민이 곡을 썼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대중적이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곡을 써서 1차로 (박진영)피디님께 보냈는데 채택이 안됐다.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노래다. 지나치게 팝 같다 등등의 안 된다라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다.”

좌절이 계속되다보니 슬럼프가 찾아왔다. 또 'K팝스타' 당시부터 워낙 고음으로만 승부해온 탓에 성대결절과 편도선 수술을 받았다. 힘든 시기가 한꺼번에 닥쳤던 것이다. 그는 그 일련의 시간이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든 2년이였다”고 돌아봤다. 이후에도 시행착오는 계속됐다. 박진영의 “뭔가 아쉽다”라는 평가는 이어졌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 박지민은 워낙 팝을 좋아해 지금까지 대중가요는 듣지 않다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요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섯 살 때 부모님의 사업으로 태국으로 이민 가서 8년 동안 살았던 까닭에 가요보다는 팝이 익숙하다.

“고집이 센 편이다. 하하! 음악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만 듣다보니까 틀 안에 갇혀있더라. 한국에서 음악을 하려면 저 혼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가요를 듣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들었던 팝은 한국적으로 표현이 안되는 게 많았다. 많이 듣다보니 가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게 됐다. 가사를 전

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알 것 같다. 조금씩 바뀌다보니 표현하는 방식이 넓어졌다.”

오랜 해외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다보니 자연스럽게 ‘뭔가’도 알게 됐다.

“어느 날 피디님이 전화로 해서 ‘지민아, 수고했다. 드디어 나왔다’라고 기뻐해주셨다. 타이틀곡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다. 그동안 워낙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하하! 이번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잘 담았다고 해서 자신감도 생기더라.”

그는 앨범에 수록된 5곡 가운데 3곡을 작사·작곡했다. 타이틀곡 '에이프릴 폴스'(April Fools)는 그의 음악적 성장을 엿볼 수 있는 곡이다. ‘진심 없는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만우절(April Fools)에 비유했다.

더욱 놀랄 일은 최근 뮤직비디오가 ‘19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헤어진 연인을 침대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서 다른 친구와 침대가 부서질 정도로 들썩이는 내용이다. 마냥 소녀인 줄 알았던 시선을 과감히 깨뜨렸다.

“하하! 아직도 저를 옛날 소녀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 이제 성인인데, 벌써 스무 살이 넘었느냐고 놀라는 사람도 있다. 뮤직비디오만 보면 더 놀랄 것 같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게 표현됐지만 평장지 만족한다. 그동안 불렀던 노래도 ‘소녀스러운’ 노래들이었다. 강하고 센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게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앨범 이름도 ‘지민x제이미’로 정했다. 밝고 명랑한 소녀의 모습이 ‘지민’이었다면, 자신의 영어이름인 ‘제이미’로는 성인 이 된 후 걸어갈 길을 표현했다. ‘K팝스타’로 알려진 박지민에 이어 새로운 여성 솔로가수로 성장해나가는 터닝포인트인 셈이다.

“소녀 지민’과 작별을 고했다. 과거에는 원래 제 성격을 숨기고 음악을 했다면, 이제는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다. 스펀지 살의 건강한 여자 박지민을 표현하고 싶다. 거부감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훨씬 ‘박지민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무대가 그립다고 느끼 건 오랜 만이다. 오래 쉬었고, 이제는 제가 표현하려는 게 무엇인지 뚜렷해졌으니 자주 나올 것 같다. 반갑게 맞아 주시면 좋겠다.”

이정연 기자 amjoy@donga.com

▶ 가수 박지민이 2년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지민x제이미'를 발표했다. 5곡 가운데 3곡을 작사·작곡한 그는 “박지민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제가 표현하려는 게 뚜렷해져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한동근,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가수 한동근(25)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한동근은 8월30일 밤 11시께 서울 방배동 동덕여고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한동근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이었다. 한동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5일 “한동근은 현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필요한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MBC ‘위대한 탄생’ 우승자 출신인 한동근은 최근 MBC ‘복면가왕’에서 ‘밤 로스’란 이름으로 3연속 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엄용수,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개그맨 엄용수(65)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세 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비원 2명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엄용수는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대방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단지 내에 주차돼 있던 K5 차량을 들이받고 150m 더 나아가 렉서스와 아우디 차량을 충돌했다. 엄용수의 차량은 이후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 2명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경비원 2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용수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진 악플러 명예훼손 혐의 구속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연기자 심은진 등에게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배우 A씨에 대해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은진에 대해서도 악성 댓글 100여 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은진은 7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진은 SNS를 통해 이 씨의 구속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재판도 남아있기에 차분하게 재판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드라마 ‘시간’ 스태프 불법주차 사과

MBC 수목드라마 ‘시간’ 제작진이 스태프 불법주차에 대해 사과했다. 5일 제작진은 “3일 고양시 덕이동에서 촬영차량 몇 대가 버스정류장과 개인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했다. 당시 우천으로 장비이동 통선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됐으며, 사유지 불법주차로 영업에 방해가 됐다. 촬영 편의를 생각했지, 중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시간’ 스태프의 불법주차로 편의점 앞 도로를 비롯해 버스정류장까지 점거, 도보를 이용하던 시민들과 편의점 측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쥬얼리’ 박정아, 결혼 2년 만에 임신

쥬얼리 출신의 연기자 박정아가 내년 봄 임아가 된다. 소속사 쥬얼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5일 박정아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현재 임신 초기로 내년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서 “박정아 전상우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에 기뻐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의 축복과 응원을 받으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프로골퍼 전상우와 1년 6개월의 교제 끝에 2016년 5월15일 결혼했다. 박정아는 임신 중에도 연예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정아는 2월 중영한 KBS 2TV ‘내 남자의 비밀’, 뮤지컬 ‘울스업’ 등에 출연하며 올해 상반기 활발히 활동했다.